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2)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들어가는 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편견과 오해의 책이었다.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65권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책이거나 혹은 종말에 대한 별책 부록(別冊附錄) 정도로 다루어 왔다. 과연 그럴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성경에 대한 이질적인 신사상(?)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65권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과 확증을 통한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글을 쓸 때 결론의 금기 사항 중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단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철칙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미혹과 혼란의 지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베리칩(veri chip)과 연결하여 베리칩을 받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주장 같은 것이다. 65권의 믿음을 통한 은혜로의 구원론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의 구원이 베리칩의 수용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치 글쓰기고 말한다면, 결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동안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마는 격이다.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은 글의 통일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이 설교한 성경이 기록 목적을 따라 읽어야 하는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한마디로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 성도와 신앙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시키는 책이다. 삶의 참된 변화 위하여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변화란 바벨론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이단들의 강력한 도전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닌,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케 하는 삶을 위한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듯이, 오늘도 성도들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도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다. 비록 박해의 형태를 띠고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 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가 요한계시록의 의도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공동체를 대항문화적인 방식(counter-cultural way)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엎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대안적인 음성(alternative voice)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에 대하여 요한 실리에(Johan Cilliers)교수는 월터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낯설지만 구원하는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일차원적인 세상을 관통하여 놀랍게 만들고 자극하여 새로운 전망을 드러내서 새 세상으로 인도하며 복음적인 대안을 받아들여 살아내도록 이전 것을 벗겨내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다.”¹

이러한 대안적인 세계를 제시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대안적인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성경 중에서도 이러한 대항문화적인

삶의 목표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 호의 관심은 이러한 대항 문화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점을 어떤 그릇 혹은 형식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형식

요한계시록의 저술방식을 조사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공동체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파악하게 될 때, 삶의 변화시키는 설교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사도 요한이 위협과 유혹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어떤 그릇에 담았는지를 논할 때 주목할 것은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사고, 즉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² 가운데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제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적,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는데 반해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직관적, 구체적, 상상적인 접근을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요한 계시록 가운데 끝없이 등장하는 이미지, 상징, 환상, 비유, 묵시적 묘사들은 이 책이 얼마나 철저히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한마디로 요한 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항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매료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추구하면서, 외관상으로 더 힘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 명제적 진술을 통한 직접적 선포의 방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상상력에 주의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공동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과 스탠리 하우어바스(Stanley Hauerwas)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

¹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살아있는 복음의 음성』 (서울: CLC, 2014), P. 188.

처럼, 요한은 우리들이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대안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자신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요한은 교회가 두려움과 영적 마비상태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빛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

대조의 방식으로 거짓됨의 폭로와 새로운 구축을

공동체로 하여금 대안적 세계를 다시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거짓된 세계를 폭로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요한은 정사와 권세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이 세상 제국의 실체가 다름 아닌 압제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화면 안에 짐승과 바벨론의 모습을 허상의 실체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 1-4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등장한다. 요한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스케치하면서 참람된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단순히 현존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제국의 방식에 동조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급진적인 저항을 통해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미 살펴본 17장에서 그 당시 제

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도성이기 보다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헤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지대로 빠뜨리는 음녀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음녀라는 창기 메타포를 통하여 바벨론의 속성이 사람을 미혹하고 꺾이고 죽이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대안적 세계를 큰 화면 안에 그려주어 신앙 공동체에게 소망을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나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계시록이 세상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만을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한다면, 반쪽짜리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계시록은 이 거짓되고 허상의 실체들로 가득 찬 세계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평화로운 통치의 세계를 대안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만든다. 이 세상 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짐승과 바벨론의 실체와 반대되는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그림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표지로 가지고 있는 어린양의 신부이다.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어진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극적이고 대조적인 환상은 그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싸움이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서의 싸움이라는 점을 더욱 더 확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두 세계의 길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된 실체에 대한 순응과 충성의 길을 거절하고 참된 왕에게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² 내러티브적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MP, 2006), 78-107을 보라.

³ 조엘 그린, P. 198.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저술 형식을 따라 읽기

요한계시록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저항하도록 인도했다는 점을 존중하게 될 때, 먼저는 단순한 문자 주의적 해석과 적용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설교는 계시록의 많은 이미지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두 대조되는 세계의 실체와 두 대조되는 삶의 길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숫자 가운데 하나인 144,000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총수가 어느 이단들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144,000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받은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 한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존중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과 그 내용을 싸고 있는 형식에 동등한 무게를 두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토마스 롱의 표현처럼 내용과 형식, 두 가지는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물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위한 장식 정도로 취급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거나 풍성히 읽어가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형식을 간과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⁴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력을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본문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작

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a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력을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본문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a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내용의 형식“ (“form of the content”)이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미궁에 빠져 있었던 원인은 요한계시록의 형식 혹은 장르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토마스 롱의 주장이 맞다면, 요한 계시록이 형식에 있어서 상징적인 면에 치중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서신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명제적이고, 교리적이며,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상상적이며 그리고 쌍방 참여를 제안하는 책이다. 마르바 던(Marva Dawn)의 주장처럼,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충실하게(literal)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literalistic)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⁴ 토마스 롱,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 박영미 옮김 (서울: 기독교 서회, 1999), P. 26.